



2012년 포항 진방스틸

그 곳에서 '또' 벌어진 충격실화

가해자는 부당 정리해고를 했다. 가해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
그러나 죄는 부당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운
피해자들에게 씌워졌다
가해자는 그 죄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해고했다

도끼가네

감독 정태정 진방스틸 사장 | 원작 김길출 한국주철관 회장

진방스틸 거짓이 진실을 처벌하고 악이 선을 제압하는 세상은 계속된다

두근두근!
 아버지의 출근을
 아버님! 이가 응원합니다
 비록 작은 포스트잇에 쓰는 쪽지
 하나지만 아버지께 큰 힘이
 되었으면 좋겠네요~
 무뎠어도, 조금 배가 나왔어도 항상
 누와 배고도 못하게 아버가 도와야!
 일이 조금 힘들어도 힘내서 열심히~
 항상 언제나 나는 아버를 사랑하고
 왔다는거 알지요? 항상 응원도 해왔
 아버님도 내가 제일 많이 많이 →

들어줄까? 그치? 이 다음에 안그래
 더운현장에서 일하는데 양도 많이
 흘리고 땀, 짜증도 나겠지만
 아버는 아버지할때가 제일
 멋있어 알지? 나도 내일 열심히
 할꺼니까~~!! 아버지한 약속
 사할일까지도 열심히 할꺼니까
 아버로 힘내~
 화이팅~ 사랑해
 From. [redacted]

정리하고로 3년 동
 안 공장에서 쫓겨나
 싸웠다. 대법원 복
 직판결 받고 출근하
 던 첫날, 딸아이가
 "아버는 일하는 모습이 제일 멋지다"는 메모를 남겼다. 하지만 딸아
 이의 아버는 출근 4개월 만에 또 징계해고를 당했다. 부당하다고 판
 결난 바로 그 정리하고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.. 아버는 딸아이에게
 또 다시 해고당했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다.

부당 정리하고 판결, 현장복직 4개월 만에 또다시 '해고'가 웬말이냐

작년 5월, 대법원의 부당 정리하고 판결 받고 8월에 복직했습니다. 일 꺼리 없다며, 일 하던 자리가 사라졌다며 풀뽑기 시키고, 페인트칠 시키고, 담벼락 정비시키고, 교육만 시키더니 갑자기 12월엔 또 징계라니요?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또 징직, 해고를 당해 길 거리로 쫓겨났습니다.

정리하고 부당 판결났으니 복직투쟁은 정당방위, 부당징계 철회하라!

징계의 이유가 더 웃깁니다. 재작년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이 회사에 의해 무수히 고소고발 됐고, 이에 대해 작년 8월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.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이 난 부당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것이 징계의 이유입니다.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났으니 복직투쟁은 정당방위입니다. 그래서 몇 년전 복직투쟁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합니다.

진방스틸에서 '다섯 번' 해고... 해고가 장난이냐! 사람 목숨 달렸다!

징계해고..정리해고..징계해고..징계해고..징계해고, 이렇게 무려 다섯 번이나 해고된 사람이 있습니다. 네 번 부당하다는 판결 받고 복직했지만 또 해고한 것입니다. 해고가 장난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.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버티는 노동자를 다섯 번 씩이나 해고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요. 가정을 파괴입니다.